





#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인민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 굽이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9월의 맑고 푸른 하늘에 람홍색 공화국기가 펄럭 휘날린다. 우리 인민모두의 삶의 요람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꽃피워주는 어머니 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창건 66돐을 맞이한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선군으로 존엄높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있다.

뜻깊은 이날 우리는 이 땅에 굽이치는 다함없는 그리움의 물결에 마음을 싣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았다.

태양을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인민의 총정기 그대도 화려한 꽃바다를 펼쳐놓았는가 광장공원에 피어난 갖가지 꽃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손저어 반기는듯싶었고 군상을 중심으로 초구치는 분수도 뜻깊은 이날의 환희를 노래하며 춤추는것만 같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금수산태양궁전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믿음의 기둥이고 주체혁명기의 승리적전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입니다.》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이 땅의 천만자식들을 반겨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를수록 한평생 모든 고난을 락판적으로 뚫고오신 절세위인들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듯싶고 우리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도 마음쓰시던 자애로운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흘러드는 것만 같았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는 수많은 인민군관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대학생들과 소년단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젖어 들었다.

이 나라 아들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자기와 자기 가정의 고고작은 일들을 아뢰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숭엄한 모습들이 더없이 소중히 인가되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싣듯 만날 수가 없었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각계층 근로자들... 얼마나 아끼고싶은 수많은 사연을 안고있는 우리 인민인가.

따사로운 태양의 그 품속에서 값 높은 삶의 자옥을 새긴 사람들은 열미와 평범한 인간들이 조국과 인

민이 기억하는 영웅으로, 참된 일군으로 자라난 가슴뜨거운 이야기들은 또 얼마이던가.

얼마후 우리는 창공높이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싣듯 자리를 뜨지 못하고있는 어느 한 중앙기관 일군인 최대룡동무를 만났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태양의 성지에 나뉘는 공화국은 우리를 세울 때의 눈빛과 다 맞았으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호모의 정이 불타오릅니다.》

격정에 넘친 그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의 눈앞에는 10대의 어린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수십살상 피바다, 불바다를 헤치시어 찾아오신 조국, 해방된 강토에 인민의 국가를 세워 인민들에게 진정한 삶을 안겨주시려고 마치고신 우리 수령님의 평생을 그리고와 심혈이 가슴뜨겁게 안겨졌다.

우리 공화국이 창건을 선포한지 불과 몇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때에 세계《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하고 그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은 영웅의 나라로 자랑할수 있는 것도, 모든것이 파괴된 전후 제더

미우에 복구건설의 장엄한 노래를 울리고 공업화의 역사적과업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행하면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생태를 높이 쌓아올릴수 있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비범한 영도의 결과이다.

통남산의 맹세를 다지신 때로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지시고 광활한 미래에 이끄는 위대한 수령님의 평생을 우리는 우리라면 세월의 눈빛과 다 맞았으며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과 호모의 정이 불타오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조국의 부강번영에 헌신한 절세위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들이 대화를 이룬 금수산태양궁전광장.

《마음의 기둥, 신념의 기둥으로 안고 사는 금수산태양궁전입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하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더욱 빛날수 있었으며 회색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어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찬란합니다.》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총속에서 군사복무의 값높은 삶을 빛내이는 조선인민군 군관 백병진동무의 진심어린 말이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원수님들의 한말씀에 대한 고마움과 자기들의 오늘과 같은 성장에 갖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광장에 특색있게 꾸러진 휴식터에서 정성들여 가꾼 수많은 나무들과 꽃관목들, 각이하게 뿔여져나오는 분수들을 바라보며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이처럼 훌륭한 태양청춘의 대화원을 마련 해주신 경애하는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한껏 어려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신의주시 분부동 19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장영일동무의 가정도 만났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고 여기 태양의 성지를 늘 찾아오고싶어 하던 이 나라 인민의 절절한 소망을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싶습니다.》

특색있게 꾸러진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한포기의 잔디, 한그루의 나무, 하나하나의 시설물들에 이르러가 저 어디에나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생의 모습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정성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뜨겁게 깃들여있어 누구나 쉬이 감동음을 깨지 못하고있었다.

이 나라의 평범한 노동자, 농민의 아들딸들도 마음껏 배움의 노래를 쳐도록 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사랑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산다고 하면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손재성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들은 과학의 최첨단을 통과하여 이 땅에 기여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을 빛내어 왔습니다.》

정녕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넘쳐나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심장 깊이 새기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하에 우리 공화국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

로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철석의 의지였다.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다지는 맹세는 오직 하나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우리 원수님처럼 이 조선을 사랑하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우리 인민을 한눈에 안아주시며 온 강산이 환해지도록 맑게 웃으신다.

그렇다.

건국의 어버이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축복을 심장으로 받아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고갈 신념의 맹세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이 넘쳐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신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으로 찬란히 빛나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글 채희성  
사진 본사기자 김철우



### 2 면에서 계속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공화국을 세상에 가장 우월한 자주적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억연드높지 않는 토대와 양양한 절도를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길에 빛날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늘 위대한 당의 영도하에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고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도록 하시고 끝없이 빛내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식, 장군님식 대로 풀어나가며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시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곧바로 전진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영상 작품들이 모처에 태양의 모습으로 정중히 모셔지고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부러우신 행복의 씨앗들이 풍만한 열매를 맺고있는 참된 현실은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즐거이차여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운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중심주의의이라고 밝히시고 정권기판과 일군들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

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밑에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언제나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을 더욱 빛내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 것처럼 인민을 만들어가는 투철한 인민관이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조국평화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 송도전국제소년단야영소,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인민사랑, 무대사랑의 건설체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있습니다.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품이아달로 진정한 어머니조국이고 김일성-김정일동지의기치따라 나아가는 길에 부강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확증해주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공화국의 66년력사의 빛나는 총화라고 하겠습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 것은 공화국정권의 최대의 사명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무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다져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혁명적 유언과 지도사상으로 삼고 대원수님들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대원수님들의 존한과 함께 빛나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국가로 끝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은 사회의 김일성-김정일동지의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공화국의 정치, 군사, 경제적위력을 백배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원수님의 말씀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 전군, 전민이 하나로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기풍을 세우야 하였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의 교양, 신념교양, 계급교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 우리 공화국과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열렬한 애국자,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키우며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군대를 그 어떤 침략자도 타승할수 있는 조국수호의 강령적전위대, 선군혁명의 역적의 지지점으로 더욱 강화하고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시킴으로써 공화국을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들을 제압하고 사회주의조국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였습니다.

전체 인민들은 불타는 애국의 열정을 안고 농업, 건설, 과학기술을 비

롯한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자면 정권기판들을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 수행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백배으로 높여야 합니다.

모든 정권기판 일군들은 당의 유일적령도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결연한 투사,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가는 능숙한 지휘관, 당의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가담해 하기 위하여 열사적분투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공화국정부성명에서 천명하듯 민족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간것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

을 거어 실현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지침을 확고히 결지하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공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가 조국의 앞길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기가 무궁토록 휘날릴것이며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로 영원히 고무추동할것입니다.

모두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기치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서 굳게 공화국의 위상번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갑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동지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지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혁명렬사들께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령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들이 쇄여져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실하였으며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령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참가자들은 령사들과 령사묘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돌 경축연회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 경축연회가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반만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고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터전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연회에는 김정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무력, 정권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경축 제1부조선인민군축단과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주요 여러 나라의 고위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관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는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연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인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이 백두산 천지에서 세우려오신 새 기발높이여 삼천만은 나섰다는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를 부르며 건국의 환호를 세기의 하늘가에 터치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66년세월이 흘렀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는 지난날 세계사에서 으뜸을 잃었던 식민지조국에 오늘 세상에 존엄높이는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된 기적의 력사이며 자주시대 국가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긍지높은 력사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미증유의 간고한 시련과 백승의 위훈으로 수놓아진 이 력사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그 어떤 지정학적요인이나 령강들의 세력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의 수레와 그 두리에 굳게 묻힌 인민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고귀한 진리를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수천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참다운 인민의 정권을 세우주시고 우리 조국이 영원히 번영할수 있는 민선로대를 마련하여주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숭고한 영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었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공화국을 통성변명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세계

방면에 빛내이기 위하여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공화국정부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도록,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세세년년 울려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천명강자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적 령도하에 당과 약동하는 젊음으로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백두산대국의 노도와 같은 전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으며 승리는 언제나 역사적정리라고 강조하였다.

화환가자들은 우리의 운명이시며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명을 추념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돌을 맞으며 9일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령사릉들과 령사묘에 진정되었다.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

현영철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최봉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김경태동지, 박법기동지, 오수용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내각부총리들,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근로자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목이 울리는 속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의 화환

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애국렬사묘에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애국렬사묘에 화환진정대에 《영웅들의 녀》에 진정되었다.

인민부총리,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교육, 보건, 출판, 보도기관, 평양시 당, 정권기관, 시급기관, 공장, 농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

# 령군봉에 올려퍼진 신념의 메아리

주제 51(1962)년 8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그이를 모신 교사야영생들은 혼련강변에 따라 혼련을 진행하였다.

혼련이 끝났을 때였다. 승리의 합성이 메아리치는 고지정점에 거연히 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의 산야를 굽어보시었다.

잠시후 오락회를 하던 야영생들은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실것

을 청도했다.

요란한 박수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야영생들을 일렬히 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눈고낮은 산밭들이 멀리 뻗어간 저 북쪽하늘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솟아있을것이다. 백두산에서 바로 우리 혁명의 행군길이 시작되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항일혁명선열들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그 길을 이어 힘차게 걸어가고 있다. 우리는 혁명의 무기, 계

급의 무기를 더욱 역세게 들고 이 땅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

우리 시대앞에 나선 숭고한 의무를 생각하며 잠시 말씀들을 읊으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오늘도 이 감정을 시형에 옮겨놓고싶다고 하시며 즉흥시를 읊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저택처럼한 읍성이 산정에 메아리쳤다. 우렁찬 박수소리가 뽕성마당 퍼져들었다.

바위우에 높이 서서서 천만대군을 이끌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 삼천리강산을 탁연으로 꽃피우신 맹세를 즉흥시에 담아 퍼떡하시는 그의 모습에서 야영생들은 위대한 백두산장군, 절세의 명장을 보았다.

우리 인민이 이룩하는 력사의 봉우리 《영군봉》은 오늘도 그날의 사연을 전하며 천만군민을 부르고있다.

영원히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 가라.

본사기자



대성산혁명렬사릉,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진정





# 자주성을 옹호 하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희망의 등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6돐에 즈음하여

###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군사강국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베넌에서는 경축대회, 영화감상회, 에피드드에서는 경축집회, 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도서 전시회 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백두산전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수록한 도서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강성대국의 불모라》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인민혁명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김일성주석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며 현재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백범재승의 강철의 평장이다.

주석께서 창단하신 자주독립 국가의 창건은 온 세상에 선포하신 때로부터 지난 66년간 조선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께서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세계와 더불어 조선인민과 진보적민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새겨주시길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국은 자기의 투철한 지도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지반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실현해나가는 정치사상강국이다.

공화국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조선인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사상적기치로 빛을 뿌리고있다. 자기 수명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는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 제힘으로 만단을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비롯하여 조선인민들속에서 높이 일떠서고있는 숭고한 정신과 기풍들은 다 주체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조선사회의 일일성정치는 모든 승리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하기에 조선사회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사회로 되고있으며 사회주의조선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치군사적 압력과 경제봉쇄, 사상문화적공세에도 끄떡하지 않고 강성국가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주체사상연구 에피드드문화회 위원장은 김일성주석의 건국업적을 만대하에 같이 빛날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어 강성국가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조선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화국은 자기의 투철한 지도 사상과 리념을 가지고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지반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벨남, 르르니아, 벨가리아, 핀란드에서 2일부터 4일까지의 기간에 경축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장소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테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백두산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모임장소들에 전시되어있었다.

모임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벨남조선전선전회 위원장 팜뎃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김일성주석의 평등도미에 따라서서 조선인민들이 벌어들인 자주권을 수호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인 당당의 영원한 충비서이신 김정일동지 그리고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혁명력사와 밀접히 결부되어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들의 평등도미에 따라서서 조선인민들이 벌어들인 자주권을 수호하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인 당당의 영원한 충비서이신 김정은동지를 칭찬하였다.

핀란드조선전회 위원장 안데르 씨가 이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세워주시고 김정일총비서께서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있으며 조선인민 사회주의강성국가의 건설을 위하여 힘써나가는 열의와 열정을 보여주고있다.

김일성주석은 한평생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참다운 인민의 수령,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장구한 기간에 걸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과정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민류가 따라배워야 할 귀범을 창시하고있다.

2 1950년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가 쓰러진 참패를 당한 미제는 여기에 호흔을 찾을 대신 남조선강점 미군을 필장적으로 강화하면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기회만을 노려왔다.

지금 남조선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오늘날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과 아시아 침략을 위한 전쟁기지로, 국통최대의 핵전초지가 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야기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면서 기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제2의 조선전쟁의 불길은 새로운 세계 대전으로 번져가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담보도 없다. 여기에 미군의 남조선영주주의 위협성이 있다.

공정한 국제어른은 미제의 남조선강점 이 조선반도분열의 근원이며 평화의 압적 존재이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조선반도뿐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야기되고 전쟁위험이 증대되고있는것도 미제의 남조선강점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은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트라민 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그리고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 새로 일떠서고 공원,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러져 평양의 아름다움과 볼모로게 달라졌다.

세계적수준의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도 건설되었다. 이 천지개벽된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은 대미약, 대핵신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굳센 단결로 힘입어 김정일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 세나트선박 및 무역 사인유원공사 사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절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쳐며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지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베넌사회주의 당 위원장 알리 후두가 8월 29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나랏의 민족의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나라이다. 자주사상으로 불리우는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철두철미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정치를 펼쳐나갔다.

대의 활동에서도 자기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친력과 간섭,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주화된 새 세계를 지향해나가고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 소조가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은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트라민 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그리고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 새로 일떠서고 공원,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러져 평양의 아름다움과 볼모로게 달라졌다.

세계적수준의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도 건설되었다. 이 천지개벽된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은 대미약, 대핵신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굳센 단결로 힘입어 김정일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 세나트선박 및 무역 사인유원공사 사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절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쳐며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지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 소조가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은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트라민 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그리고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 새로 일떠서고 공원,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러져 평양의 아름다움과 볼모로게 달라졌다.

세계적수준의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도 건설되었다. 이 천지개벽된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은 대미약, 대핵신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굳센 단결로 힘입어 김정일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 세나트선박 및 무역 사인유원공사 사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절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쳐며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지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 소조가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은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트라민 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그리고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 새로 일떠서고 공원,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러져 평양의 아름다움과 볼모로게 달라졌다.

세계적수준의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도 건설되었다. 이 천지개벽된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은 대미약, 대핵신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굳센 단결로 힘입어 김정일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 세나트선박 및 무역 사인유원공사 사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절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쳐며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지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 소조가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은 최근년간 조선에서는 트라민 민유원지, 류경원, 인민아외빙상장 그리고 창건거리, 은하과학자거리,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등이 새로 일떠서고 공원, 유원지들이 훌륭히 꾸러져 평양의 아름다움과 볼모로게 달라졌다.

세계적수준의 미림승마구락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도 건설되었다. 이 천지개벽된 모습에서 조선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그들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은 대미약, 대핵신하고 있다. 조선인민은 굳센 단결로 힘입어 김정일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강조하였다.

싱가포르 세나트선박 및 무역 사인유원공사 사장은 오늘 조선인민은 절대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물리쳐며 최후승리를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된 지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우리는 조선의 참다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66돐을 열렬히 축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 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 소조가 8월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것은 주체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역사적사건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민들의 희망의 등대이다.

오늘 남조선에 오를 미국은 계속 묵묵히 미군을 남조선에 주둔시키려는 것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도 외국군대를 철수시키는 것은 추세로 되고있다.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박 송 영

고도의 과학 기술적진보와 사회발전속에 현대문명을 향유하는 오늘의 세계에 사는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장구한 인류력사의 갈피들을 돌추어보면서 또 현대과학기술의 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품고있는 생각이다.

하다면 오늘의 세계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평화로운 것인가.

명백히 아니다. 오히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난 노소유자 사회내부 봉건사대주의를 무색케 하는 억압과 지배, 인간도살이 행하여 인간적 초보적인 존엄과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있다.

미국이 가는 곳마다에서 인권을 무장히 유린당하면서 현대를 암흑의 세계로 몰아가고있기때문이다.

최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도처에서 감행되는 미군 의 무고한 민간인살륙만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자료를 의하면 2001년부터 2011년 400명으로 해마다 11

## 전멸을 원치 않거든 제 소굴로 돌아가라

최근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미국 보수층내에서도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얼마전 미국 특권전쟁대학부설 전략문제 연구소는 《전략적환경의 중요한 변화》와 《비용중》 등을 고려할 때 미군의 남조선 주둔이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타성에 따른 회생물》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략문제문제연구소와 미국 기업연구소, 펜드연구소 등도 이러한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 케이트연구소의 한 상급 연구사는 잡지 《포브스》에 미군의 남조선 주둔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남조선과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 특히는 보수층내에서까지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킬때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주목되는 움직임으로 된다. 이것은 미군의 남조선강점 시대에 역행하는것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주류는 요인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런데 미제전력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을 위한 현존제수단이라고 광고하는것은 저들의 침략정체를 가리우고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았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남조선영주주의를 떠드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고 허황한 꾀이 없는 강도적범죄이며 패권정식고방식의 호전적 망동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속히 철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 전역의 운명을 면치 못하게